

학교 교사를 위한 ADHD 정보공유 사이트의 역할과 현황

최연숙
김포대학교

The Role and Current Status of ADHD information-Sharing Websites for School Teachers

Yeonsook Choi
Kimpo College

요 약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는 아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경발달장애로서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3-4% 정도가 ADHD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일부만이 정상적인 진단과 관리를 받고 있다. ADHD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개 심각한 학업성취도 저하를 보이는데, 학교 교사들은 바로 이런 ADHD 증상여부를 의심하게 되는 첫 번째 관찰자가 되기도 한다. 교실 안에서 ADHD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들을 위해 ADHD 관련 교육 및 교사 지원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들 국내외 ADHD 정보공유 웹사이트의 운영 현황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중재전략, 평생교육, 웹사이트, 정보공유

Abstract ADHD is a neuro-developmental disorder that begins in childhood, yet may continue into adulthood. Although 3 to 4 percent of adults are affected by ADHD, but only a small proportion of adults ever receive a formal diagnosis and treatment. The core symptoms of ADHD frequently lead to significant academic difficulties that often result in the students' teacher being the first to suspect the disorder. In order for school teachers to effectively deal with ADHD students in school classrooms, they need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ADHD students. This study presents a list of ADHD-related web sites which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and support for school teachers, and provides the discussions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the roles of those web sites.

Key Words : ADHD, Intervention, Life-long education, Website, Information-Sharing

1. 서론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증상은 아동기의 대표적인 정신장애로서, 학령기 아동에서의 유병률이 약 3-7% 정도 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반에 20명 내·외

Received 24 March 2014, Revised 21 April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 Yeonsook Choi(Kimpo College)

Email: white9879@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의 학생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의 경우 반에서 최소 1명 정도가 ADHD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1], 영국에서도 아동들의 3% 정도가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증상은 일부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그 증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7-40%가 ADHD 및 그와 유사한 장애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ADHD 학생들은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 등은 학업부진, 반항과 공격성, 또래 관계의 문제 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ADHD 학생들은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우울증과 강력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청소년 행태에 관한 통계적 분석결과, 10대 청소년의 우울증과 ADHD 증상은 가출, 폭행 등의 일탈행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발표된 바 있다[3]. 이렇듯 ADHD 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ADHD 증상은 대인관계 기피 및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또 다른 질병이나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ADHD를 접하고 교육하는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대부분은 ADHD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4,5,6], 초등학교 교사들도 전문적 지식이 거의 없어서 적절한 교육적 중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7,8,9,10].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대상 연수 내역에 따르면, 관내 초·중등 교원 7만 1471명(2009학년도 기준) 중 최근 3년간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는 1,992명에 불과했다[3].

ADHD 증상의 조기 선별과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동의 경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므로, 부모와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 핵심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8]. Anderson 등의 연구[11]에 의하면, 교사는 ADHD 학생의 증상을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와는 이에 대한 학교내외에서의 대응전략을 논의·상담해 주며, 교실에서는 학업 및 사회관계의 긍정적인 성과를 위해 직접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Pineda 외[12] 또한 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아동의 지도 방식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ADHD 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 자아 정체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유일영 외[4]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ADHD 치료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아동의 질병치료에 대한 순응력을 향상시켜 의학적 치료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지식수준과 태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ADHD 증상의 인지와 대처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 ADHD 증상을 보이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진로 및 평생교육은 현직 교사들의 ADHD 학생의 증상과 태도에 관한 지식획득과 적극적 지도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물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ADHD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정부지원 차원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화된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이처럼 수동적으로 정부와 학교의 지원 대책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만큼 ADHD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조기 대응이 시급하며, 디지털화된 정보를 다양한 정보공유사이트를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ADHD 사이트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ADHD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가, 치료사,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등 다양한 배경과 개인적 니즈를 고려한 재교육 학습장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에 따른 ADHD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제시하고, 교육 및 상담기관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정보공유 사이트의 현황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 연구방법은 구글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국내 ADHD 지원 웹사이트와 영어권의 ADHD 지원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탑재하고 있는 콘텐츠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ADHD 관련 사이트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ADHD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및 치료사, 사회복지 서비스종사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생애주기 상의 ADHD 대응정책의 필요성

ADHD 증상은 청소년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이 나돈 적도 있었으나, 90년대 초부터 ADHD 증상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 유년기 ADHD 증상 환자 중 약 3분의 2 이상이 그 기간을 벗어나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인구의 4.4% 정도가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라에 따라 1.2%~7.3% 정도의 성인들이 ADHD 또는 그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ADHD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적응문제, 감정조절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끊임 없이 움직이고, 부적응적 행동을 자주 보여주며, 이로 인해 학업적, 정서적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하여 교육해야하는 교사의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경우 ADHD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의 교육의 질이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성인의 ADHD 증상은 어린 시절에 나타났던 ADHD 증상과 또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과잉행동은 아동기 초기에 쉽게 나타나지만, 청소년이나 특히 성인이 되면 감소하는 반면, 부주의 증상은 다소 늦게 나타나지만 보다 지속적이며 성인이 되면 뚜렷이 드러난다. 성인 ADHD는 주의력, 인내력, 쉽게 산만해짐 그리고 자기 통제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및 상담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학 및 직장에서의 새로운 삶의 적응이 쉽지 않다. ADHD 증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스킬과 도구를 이른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면 ADHD 증상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스스로가 ADHD 증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자발적 참여가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필요하다[14].

2.2 생애주기 단계별 적응의 장애요인

ADHD는 생애 주기에 걸쳐 개인의 기능적 장애(functional impairment)를 불러일으킨다. 보통 사람들에게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만 매일 매일의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DHD 증상을 보이는 청년들은 정상인에 비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도 높으며, 학교나 직장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일 우려가 크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이런 증상의 폐해를 가중시킨다. 이런 증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중재전략을 체득해야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실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3배나 높다고 한다[13].

따라서 생애주기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마다 ADHD 증상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새로운 ADHD 평가도구의 적용, 적절한 행동적 중재방법의 체득 등을 통해 새롭게 부각될 환경적 요구와 삶의 목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연령대에 맞는 자기관리 기술, 대인관계의 관리 방법, 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ADHD 증상에 대한 충분한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생애주기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적응차원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유아·아동기 - 청소년기로의 전환시점

유아·아동기 때에는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의학적인 치료와 다양한 상담, 진료 과정에의 참여도 부모가 결정하고 유지한다. 적절한 시기에 ADHD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환경적 수효는 가장 낮은 기간이지만 가족과 교사로부터의 지원 정도는 가장 높다.

ADHD 증상은 적절한 중재방법을 통해 장애로부터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12세~7세)로 접어들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ADHD 증상 청소년들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ADHD로부터 나타나는 장애는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업 성취도 등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청소년 후반기에 접어들면 ADHD 증상 자체도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게 되어 ADHD 진단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부인하거나 부모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문의를 처방이나 진료상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는 ADHD 증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2.2.2 청년기(18세~25세)로의 진입

이 시기는 가족 외의 사회구성원들과 사회적 관계를 개발·유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잡게 됨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는 시기이다. 즉, 부모의 지원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일부 환자의 경우 증상이 완화되어 이전의 ADHD 평가기준으로는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중재스킬의 획득은 ADHD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ADHD 평가기준 습득이 중요하다. 적절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중재가 병행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ADHD 증상 환자들의 어려움은 청소년기 수준을 넘어선다. 직장, 가정, 친구관계에서의 환경적 요구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2.2.3 중장년기로의 진입

과잉행동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증상들은 여전히 감정조절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충동적인 말싸움, 부주의로 인한 다양한 실수, 주어진 시간 내의 작업 완수의 어려움, 정리정돈의 어려움, 무단결근, 깔끔한 마무리 부족, 부주의한 시간관리, 감정조절의 어려움, 상급자와 동료와의 불협화음, 미진한 업무성과, 인내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ADHD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에 대한 타인의 수용이나 용인 정도가 청소년기에 비해 줄어든다. 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증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장애가 용납되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중재 스킬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로 이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성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적 장애가 생긴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치료나 상담, 중재방법 체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어야 할 증상들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해진다.

많은 경우 직장에서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부족의 결과는 아니며 대개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적절한 직장을

찾지 못해서이다. 자신의 장단점이 직무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ADHD 증상을 보이는 성인들의 경우 직업의 적합도는 그들의 삶에 일반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ADHD를 이해하는 직업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성인의 경우 컴퓨터기반 ADHD 테스트, 이러닝 기반의 중재방법 습득 등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 누구도 본인이 ADHD 증상이 있음을 주위에 알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ADHD 증상을 보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센터나 평생교육센터는 찾아보기 어렵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요구 정도가 강해지면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가질 것이다. ADHD 증상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한 사회적·환경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진단, 치료, 투약, 중재방법의 체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ADHD 진료센터 및 시설은 대부분 유년·청소년기 환자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DHD 증상을 보이는 성인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며, 체계적인 진단·평가, 상담 방법의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2.3 아동 및 학생들을 위한 중재전략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원 검토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ADHD 중재전략도 아동 및 학생에 집중된 중재전략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많이 알려진 중재전략에는 팀접근방법, 행동관리, 가족관여전략, 사회적 스킬훈련, 자기평가, 또래교수방식 등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이런 대응전략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충동성, 부주의, 과잉행동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원활한 교실 수업을 위한 중재전략으로는 활발한 반응을 요하는 과제의 활용, 피드백을 매우 빈번하게 해주는 교육방식,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된 과제 지시, 자극적인 학습지의 사용 자제, 내용이 길고 지루한 하나의 과제 대신 짧지만 여러 개로 구성된 과제 활용, 말 외에도 필기를 이용한 정보 전달,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교실에서 행동장애를 보이는 ADHD 학생에 대한 대처방법은 크게 선행요인 기반(antecedent) 방식과 결과기반(consequence-based) 방식으로 구분된다[16]. 선행

요인 기반 방식은 장애학생들이 학습이나 행동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바로 전에 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고 결과기반 방식은 처벌이나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해가는 방식이다[17].

선행요인 기반 방식은 주로 학습장면이나 교실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을 총칭하는데, 학생의 자리를 바꾼다거나 강의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든가 또는 과제의 양과 구조를 바꾸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결과기반 방식은 일일 보고서 카드, 반응대가과 행동계약 등을 포함하는데, ADHD 증상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이처럼 관리 및 중재전략은 다양하나 많은 교사들이 ADHD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통상적인 교실 내에서의 중재전략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교사들이 행동 수정프로그램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경험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부족으로 인한 교실 내에서의 효과적인 중재전략의 활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ADHD증상은 인지하지만 적절한 중재방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할 것이라 사료된다. ADHD 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한 적절한 중재 방법 제공 및 교사와 학부모와의 현장 사례 공유는 ADHD 학생의 교실 내 수업과 또래들과의 사회관계 증대, 가정에서의 예절과 생활습관 개선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ADHD 웹사이트의 역할과 현황

3.1 ADHD 정보공유 사이트의 역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ADHD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들을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지식과 중재관련 교육콘텐츠의 제공이 시급하다. 현재 ADHD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치료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학교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일 정도로 국가의 지원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과 연수 및 다양한 검사도구의 활용,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ADHD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ADHD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정책대안일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ADHD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다[18]. 실제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별검사과정에서 검사도구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ADHD를 포함한 다양한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검사 및 선별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ADHD 관련 교육 및 연수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 및 상담기관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오프라인 상에서의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공유는 불가능하다. 의사나 병원관계자들은 ADHD 잠재학생의 검사와 치료가 수익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ADHD 당사자나 일반 대중들을 위한 자세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19]에 의하면 ADHD 학생들은 다른 일반아동들에 비해 불필요한 감각정보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ADHD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들의 집중력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한 수정, 보완이 가능한 교육콘텐츠 사이트를 통해 수준별, 단계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ADHD 정보공유 사이트가 구축된다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사이트상의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학생들의 ADHD 여부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이트에 탑재될 수 있는 수준별, 단계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학부모와의 협업을 통해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에 마무리되는 오프라인 연수과정을 통한 일방적인 교육·연수보다는 불특정 다수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과 정보공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자유로운 학습과 접근을 보장하여 지극히 사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ADHD 관련 정보 제공에 적합하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 프라이버시의 보장, 물리적인 만남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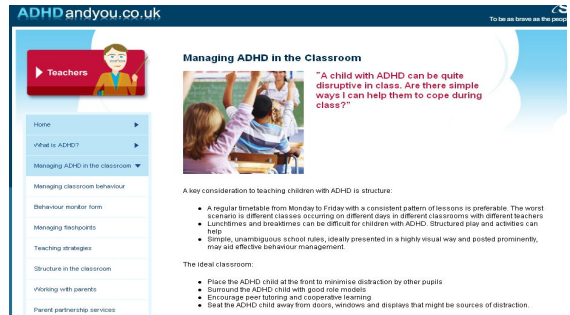
[Fig. 3] ADHD Program by ArisuEdu (<http://www.arisuedu.co.kr>)

이에 반해 구미권의 경우 다양한 ADHD 관련 지원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Fig. 4]는 유럽의 ADHD관련 협회와 제약회사가 협업 하에 ADHD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 사이트이다. ADHD의 진단과 치료,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 행동교정을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 정상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스킬과 적응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무리없이 소개하고 있어 별다른 참고서적 없이도 ADHD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식과 중재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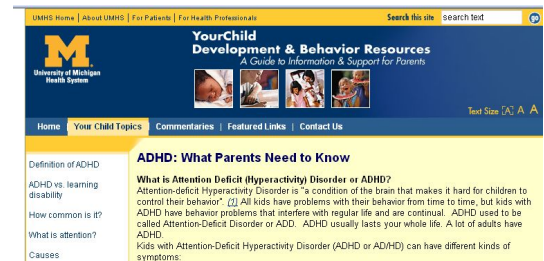


[Fig. 4] European Web Site for Teachers (<http://www.adhdpartnershipsupportpack.com/>)

[Fig. 5]는 교사들의 중재전략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캐나다의 ADHD 관련 정보 및 지원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중재전략과 추가적인 ADHD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fig. 6]은 미국 미시간대학교 건강센터에서 관리하는 ADHD 정보사이트로서, ADHD 아동을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전에 둔 ADHD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Fig. 5] Canadian Web Site for Teachers (<http://www.adhdandyou.co.uk/teachers>)



[Fig. 6] University of Michigan Web Site for ADHD (<http://www.med.umich.edu/yourchild/topics/adhd.htm>)

이외에도 < Table 1>에서와 같이 구미권의 경우 ADHD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중재전략 및 관련 지원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ADHD 지원 웹사이트는 모두 영어권 국가에서 검색한 것으로, 모두 구글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에 수록된 웹사이트들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중재방법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웬만한 ADHD 전문서적에 소개된 내용들은 이들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영리 목적의 웹사이트가 대부분이지만 ADHD 학생을 위한 실제적인 학습지원도구나 서식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ADHD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지원체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닝 콘텐츠나 교육목적 사이트는 교육내용, 교육설계, 교육환경 등의 측면에서 그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다[21]. 교사 및 교육 및 상담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사이트이므로 핵심평가지표는 당연히 콘텐츠 자체의 질일 것이다. 여기에는 제시정보의 현재성, 학습자 수준에 따른

<Table 1> List of ADHD Websites

Web Site Address	Target Audience	Information Coverage
http://www.ldonline.org/	ADHD Student, Parents, all levels 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helpguide.org/mental/adhd_add_teaching_strategies.htm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med.umich.edu/yourchild/topics/adhd.htm	Parents,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lessonstutor.com/addgenhome.html	ADHD Student, Parents	basic
http://www.findingdulcinea.com/guides/Education/ADD-ADHD-Resources-for-Teachers.xa_1.html	Preschool and Elementary Teachers	basic
http://www.time4learning.com/add.shtml	Preschool and Elementary Teachers	basic
http://www.playattention.com/	Preschool Teachers	basic
http://www.chadd.org/	Preschool Teachers, Parents	basic
http://www.adhdld.com/	ADHD Student, Parents,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bced.gov.bc.ca/specialed/adhd/	all levels 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add-adhd-treatments.com/Teaching-Children.html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addcoach4u.com/teachingstudents/adhdaccommodations.html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comeunity.com/disability/adhd/adhd-socialskills.html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adhdpartnershipsupportpack.com/	all levels 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adhd.org.nz/teach1.html	all levels 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s://research.tufts-nemc.org/help4kids/teachers/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livingwithadhd.co.uk/teachers-role	all levels of Teachers	basic
https://education.alberta.ca/admin/supportingstudent/diverselearning/adhd.aspx	all levels 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care.com/special-needs-caring-for-a-child-with-adhd-or-add-p1167-q227928.html	Preschool and Elementary Teachers	basic
http://www.adhdandyou.co.uk/teachers/managing-adhd/managing-adhd-in-the-classroom.aspx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http://www.caddac.ca/cms/page.php?49	ADHD Adults	comprehensive
http://www.naset.org/adhd3.0.html	ADHD Student, Parents, all levels of Teachers	comprehensive
http://www.help4adhd.org/	ADHD Student, Parents, all levels of Teachers	average

선택의 다양성, 검색의 용이성, 콘텐츠 구성의 표현성과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충족되면 교육설계 측면에서 사이트 맵의 정확성, 디자인과 화면구분의 정확성, 자료제시의 적정성 등의 교육공학적 요소가 가미된다. 교육 환경적 평가요소에는 커뮤니티의 활성화,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ADHD 관련한 국내 사이트는 이미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보유 수준이 극히 미미하여 평가지표를 활용한 외국 사이트와의 객관적 비교·분석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ADHD 관련한 국내 사이트에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상대적 평가가 무의미할 정도로 정보 탑재량이 미미하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국내에도 충실한 콘텐츠를 탑재한 ADHD관련 사이트들이 개발되

면 국내외 사이트의 비교·분석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Table 1>의 웹사이트가 현업만으로도 바쁜 우리나라 교사들을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가 될 수는 없다.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검사나 중재도구를 활용하려면 번역과정을 거쳐야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신뢰성이 다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DHD 정보공유 사이트는 전문연구인력이 포진해있는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단 어느 정도 규모있는 사이트가 구축되면 교사나 학부모 및 전문가 들 간의 협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내실있는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 <Table 1>의 웹사이트에 실린 정보는 추후 국내 ADHD 사이트 구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ADHD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성장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중독 또는 범죄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만큼 ADHD 학생의 경우 현장교사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나 학생들의 ADHD 증상여부를 의심하거나 판별할 수 있는 첫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적절히 중재하여 학습성취도와 사회적응력을 제고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ADHD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교사나 학부모의 반응과 태도는 ADHD 학생에 대한 또래 그룹의 지지와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교사의 ADHD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ADHD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ADHD에 관련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현장교사들의 인식도가 낮으며, 현실적으로 적절한 상담이나 중재방법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연수기회도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양한 정보제공 및 공유사이트의 개설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니즈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필요성도 기본적인 관련지식과 중재방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전제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ADHD 관련 웹사이트는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홍보에 그치는 수준이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ADHD 관련 지식이나 중재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찾아볼 수 없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공유하고 있는 구미권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디지털 강국에 걸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구미의 영문 ADHD 웹사이트는 모든 자료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렵겠지만, ADHD에 관심이 있는 교사나 전문상담가 수준에서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외국의 웹사이트 탑재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만의 ADHD 사이트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일단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개발에서부터 요구된다. 단순히 ADHD 진

단방법 정도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재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간단한 상식 전달 정도의 내용을 벗어나 학부모, 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성인 등 수요자 집단별 콘텐츠와 중재전략에 대한 상세한 정보, ADHD 극복사례, 교사의 성공사례 등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 및 아동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도 효과적일 것이며, 성인에게는 코칭과 같은 자기개발전략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적 측면으로의 ADHD 극복을 위한 지원과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와 학교 당국을 중심으로 한 ADHD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REFERENCES

- [1] Ohan, J. L., Cormier, N., Hepp, S. L., Visser, T.A. W., & Strain, M.C., Does knowledge about ADHD impact teachers' reported behaviors and perception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23, pp. 436-449, 2008.
- [2] BBC News, ADHD treatment may reduce risk of criminal behaviour, November 22, 2012 (<http://www.bbc.co.uk/news/health-20414822>)
- [3] Weekly DongA, Cover Story : Unless treatment for ADHD is provided, April 10, 2010.
- [4] Yoo Il Young, Jinsuk Oh, Euigeum Kim, Minjeong Kim, Knowledge and Attitude to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in Korean Preschool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 15, No.4, pp. 383-391, 2009.
- [5] Hwang Soon Young, Kindergarten Teachers' Knowledge for ADHD and Treatment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9, No. 2, pp. 165-179, 2007.
- [6] Hwang Soon Young, Difficulties to Early Identification for Preschooler with ADHD : focused

-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ADHD among Pre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0, No. 3, pp. 1-17, 2008.
- [7] Jeong Jongseong and Jinoh Choi,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Teachers' Knowledge of ADHD, Attitudes Toward Including Children with ADHD, and Use of 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1, No. 3, pp. 371-393, 2010.
- [8] Lee Jungeun and Kim Choonkyong,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 Comparative Study about ADHD Tendency Child,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2, No. 2, pp. 233-254, 2010.
- [9] Hwang SoonYoung , Regular Class Teachers' Stress on ADHD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1, No. 4, pp. 77-100, 2009.
- [10] Park Mi-Hwa & Park Mi-Kye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Perceptions and Way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cope with ADHD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 51, No. 4, pp. 137-156, 2008.
- [11] Anderson, D. L., Susan, E. W, and William, N, Knowledge of ADHD and attitudes toward teaching children with ADHD : THE role of teaching experi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49, No. 6, pp. 511 - 525, 2012.
- [12] Pineda D, Ardila A, Rosselli M, Arias B.E., Henao G.C., Gomez L.F, Mejia S.E., Miranda M.L., Prevalence of ADHD symptoms in 4-17 year old children in the general population. J Abnorm Child Psychol, Vol. 27, No. 6, pp. 455 - 462, 1999.
- [13] Turgay, A., Goodman, D. W., Asherson, P., Lasser, R. A., Babcock, T. F., Pucci, M. L., and Barkley, R., Lifespan persistence of ADHD : the life transition model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 73, No. 2, pp. 192-201, 2012.
- [14] Dipeolu, A. O., College Students With ADHD : Prescriptive Concepts for Best Practice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8, No. 5, pp. 408-427, 2011.
- [15] Nowacek, J., Mamlin, N., General Education Teachers and Students with ADHD : What Modifications are made, Preventing School Failure, Vol. 51, pp. 28-35, 2007
- [16] Reid, R., Vasa, S. F., Maag, J., W., & Wright, G., An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s of ADHD Disorder,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Vol. 27, pp. 195-202, 1994.
- [17] Martinussen, R., Tannock, R., and Chaban, P., Teachers' Reported Use of Instructional and Behavior Management Practices for Students with Behavior Problems: Relationship to Role and Level of Training in ADHD, Child Youth Care Forum, Vol. 40, pp. 93 - 210, 2011.
- [18] <http://news.donga.com/3/all/20120210/43924790/1>
- [19] Choi, Jinoh, Brain Scientific Mechanism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and Education Interventions,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5, No. 2, pp.23-42, pp. 23-42, 2008.
- [20] Korat, O. & Shmir, A., Electronic Books versus Adult Readers: Effects on Children's Emergent Literacy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 Vol. 23, pp. 248-259, 2007.
- [21] Park, Seon-Ho & Kim, HyeSook, A Study on Elementary English Learning Sites of the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their Effective Uses for Teachers and Student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0, No. 1, pp. 1-23, 2010.

최연숙(Choi, Yeonsook)



- 200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교육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김포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장애인평생교육복지, ADHD, 장애인 성교육
- E-Mail : white9879 @hanmail. net